

# 詩, 음악 되어 만추의 밤 적시네

### 임원식 시인 5번째 가곡 발표회 '빛의 소리들...' 16일 금호아트홀 작곡가 7명 참여 20곡 선보여

시를 흥얼거리기 좋은 계절, 구절 하나하나에 음을 실어 노래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임원식 시인의 가곡 발표회 '빛의 소리들'이 16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임 시인의 다섯번째 가곡 발표회로 2부로 나뉘어 총 20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 시인은 (사)한국예총광주광역시지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시인협회 회원, 국제PEN광주지역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시집 '사랑이 오는 시간' 등 18권을 펴내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과 함께 문학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녹조 근정 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광주문학상과 창조문예문학상을 수상했다.

'원래 음악은 시작이고 시는 음악적'이라고 운을 뗀 임 시인은 이번 무대를 시작 영혼과 작곡가의 음악적 빛, 음악가들의 마음이 한자리에 어우



임원식 시인      소프라노 유형민      바리톤 조재경      바리톤 손승범

러지는 장이라고 소개했다. 작곡에는 강현우, 김소정, 김성훈, 김준석, 김진선, 박지영, 황성호 등 7명의 작곡가가 참여했다.

1부에서 노래하는 '구월초에게'와 '눈꽃 세상'은 김성훈이 작곡을 맡았다. 이어 펼쳐지는 '자유의 숲과 '갈', '민들레 날다'에는 박지영이 참여해 시에 음을 입혔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빛의 소리들'과 '우주의 이슬방울'에 김소정이, '맨발로 걷다'와 '기도하는 나무'에 황성호가 함께했다. 강현우는 '꽃길

과 '바람이 머무는 자리'를, 김진선이 '당신의 텃밭'과 '복사골 배밭에서'를 작곡했다.

무대에는 바리톤 조재경과 손승범, 테너 김백호와 소프라노 김미옥과 김선희, 유형민이 오른다. 반주에는 현재 광주시립합창단 상임반주자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권현, 이탈리아 로마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지현이 참여한다.

전석초대. 문의 062-361-7106.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 남원출신 조선 문인 장경세 '국역 사촌집' 발간

### 조선대 고전번역연구회, 우리말 첫 번역...한문학사 유익한 성과

"글뚝을 굽게 하고 싶을 옮겨놓으라고 한 사람에게 전혀 은택(恩澤)이 없고, 또 머리를 그을리고 이마를 데인 사람은 도리어 상객(上客)으로 삼았네. 아득히 먼 구천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사적이 까마득히 매몰되었으니 후세에 어떻게 기술하겠는가."

임진왜란이 끝난 지 9년이 지난 때, 한 선비가 산중 서재에서 홀로 책을 읽다 깜빡 잠에 들었다. 왜군이 조선을 다시 침략한 1597년 음력 8월, 남원성 전투에서 조방장(助防將)을 맡아 순절한 친구 김경로가 꿈속에 나타나 원통함을 호소했다.

선비는 꿈에서 깬 후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충절을 기리고 원혼을 달래는 '김장군을 꿈에 만난 일'을 기록한 글(夢金將軍)을 썼다. 조선 선조-광해군 대에 남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촌(沙村) 장경세(1547~1615) 선생의 이야기다.

조선 중기 문인 사촌 장경세의 삶과 문학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문집이 우리말로 첫 번역됐다. 조선대 고전번역연구회는 최근 '국역 사촌집(沙村集)'(심미안 간)을 펴냈다. 광주 출신 고려 문신 탁광무의 시문을 번역한 '국역 경렴정집(景廉亭集)'에 이은 두 번째 번역총서이다.

'사촌집'에는 광해군의 난정(亂政)을 보고 비분강개해 지은 87수의 '유선사(遊仙詞)'와 퇴계 이황의 '도산속곡'을 본 따 지은 한글가사(歌詞) '강호연군가(江湖戀君歌)'를 비롯해 110여편의 시와 기(記), 서(書), 설(說), 서(序), 행장(行狀), 제문(祭文) 등 다양한 글이 실려 있다. 사촌은 전라



도 도사-금주 현령 등을 역임했으며, 임진왜란 당시 남원부사와 협력해 군량미 비축과 군정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이후 광해군의 실정에 환멸을 느껴 벼슬길을 버리고 남원 주포촌에 은거하며 제호(號) 양경우 등 후학을 양성하고 어우(於于) 유몽인 등 여러 문사들과 교류했다. 사촌이 남긴 글을 모은 '사촌장선생문집'은 7세손(장윤)에 의해 사후 200여년 후인 1824년에 목활자본(4권2책)으로 간행됐다. 조선대 고전번역연구회 역자들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돼 있는 시문집 초간본을 저본(底本)으로 해 우리말로 번역했다.

조선대 고전번역연구회 김성석 박사는 해제 '강호에서 충군애민하며 유유자적한 유선(繡仙), 장경세'를 통해 '본 번역서를 통해 연구자들이 저자의 시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우리 한문학사에 유익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알려진 사촌 장경세의 문학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호남의 역사와 문화

### 16일 5·18기록관서 심포지엄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 이하 재단)은 오는 16일(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15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제는 '여행기로 만나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이며 구한말 부산상법회의소(오늘날 상공회의소)소속의 서기였던 일본인 마스다 고조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행기로 만나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고찰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노성태 남도역사문화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정성일 광주여대 교수가 '여행기로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발표한다.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구한말 일본인의 시선에 반영된 전라도'를,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여행기사 속의 면직물'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이항준 전남대 교수, 임선화 광주교육대 강사가 각 주제별로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 원고(자료집)는 15일 오후 6시 이후 www.rcfef.or.kr에서 참조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민연극제 작품상은 '살어리랏다'



작품상을 수상한 도담도담의 '살어리랏다' (서구문화원 제공)

### 서구문화원 주최...연출상 '고스트'

광주 서구문화원이 주최한 제8회 광주시민연극제가 막을 내렸다.

3곳의 광주지역 소극장에서 지난 7일부터 13일 까지 판을 벌인 이번 연극제는 모두 5편의 작품이 관객들에게 선을 보였다.

이번 시민연극제에서는 작품상에 프로젝트 도담도담의 '살어리랏다'가 연출상은 극단 이야기꾼의 박화선이 수상했다.

작품상을 받은 프로젝트 도담도담의 '살어리랏다'는 기억 속에 잊혀지고 능력도 잃어가는 도깨비들이 삶을 연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연출상을 받은 극단 이야기꾼의 '고스트(그 날

의 기억)'은 5·18 역사 속에서 받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의 삶을 짜임새 있는 연출력을 통해 선보였다. 특히 배우들이 1인 다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극단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두 작품 모두 서구문화원에서 공모한 창작희곡공모전 수상작들로 광주 지역 문화자원을 소재로 광주다움을 연극화했다.

최우수연기상은 각 극단별로 정거장의 '김영욱', 행복드림의 '김경숙', 예사동의 '노정오', 프로젝트 도담도담의 '차화영', 이야기꾼의 '이경순' 등이 수상했다. 공연 직전 화사한 마을극단의 '택시드러벌'은 주연급 배우가 코로나19에 걸린 후유증으로 연극공연을 하지 못해 1년 동안의 준비를 취소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피아니스트 이혁, 롱 티보 콩쿠르 공동 1위

### 임동혁 이후 21년만의 한국인 우승...노희성, 최종 5위

피아니스트 이혁(22·사진)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를로극장에서 열린 롱티보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결선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혁은 이번 대회 공동우승 상금으로 3만5000유로(약 4800만원)를 받는다. 부상으로는 수상자 음악회와 더불어 그슈타트 신년 축제 등 20여 개의 세계적인 음악 축제에 초대된다.

이혁은 프랑스 최고 권위의 음악 경연대회로 통하는 롱티보 콩쿠르의 피아노 부문에서 임동혁(2001년 우승) 이후 21년 만에 나온 한국인 우승자다. 롱티보 국제콩쿠르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그리트 롱과 바이올리니스트 자크 티보가 1943년 창설한 음악경연대회로, 피아노·바이올린·성악 부문을 대상으로 3년 또는 2년 주기로 파리에서 열린다.

이혁은 이날 롱티보 콩쿠르의 최종 결선에서 프 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연주해 공동 1위에 올랐다. 일본의 피아니스트 마사야 카메이(20)가 이혁과 함께 공동 우승했다. 총 6명이 진출한 결선에 이혁과 함께 오른 또 다른 한국인 피아니스트 노희성(25)은 최종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콩쿠르의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피아니스트 파울 바두라스코다, 장필립 콜라드,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 바이올리니스트 미셸 오를레어, 크리



스티안 페라스, 블라디미르 스피리코프 등이 있다.

이혁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결선에 오르며 주목 받았다. 결선에서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같은 해 12월 프랑스 아카데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00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혁은 세 살 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흡스쿨링을 통해 음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다 선화예술학교 부속 선화음악영재아카데미에서 정규 음악교육을 받았다. 2012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했다. 2014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블라디미르 옹치니코프를 사사했으며, 현재는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 음악원의 마리안 리비츠키 교수 아래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손해보험협회 든든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